

## An Exploratory Study of Derivation of the Constructed Factors of Parental Happiness

You, Ami<sup>1)</sup> (Soongui Women's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

< ABSTRACT >

---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define the concept of parental happiness and to identify the component factors from the perspective that parents were interacting with their children and supporting children's growth, development and at the same time, parents are developing on their own happiness. Therefore, the concept and component factors were derived by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lated to parental happiness, a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concept and component factors was verified by experts. The total number of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as 12 with 9 professionals related to pedagogy and 3 parent education expert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rent happiness was defined as being a parent, parents have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raising children, can maintain a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ies such as their children and spouses, and feel that they were growing up with developmental interaction with their children. Second, the components of parent happiness were divided into existence, relationship, and growth and sub-variables for each were derived. The sub-variables of the existing domain included health, economic power, sociocultural environment, and appearance identity. The sub-variables of the relationship domain consisted of child, spouse, and parent relationships, other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Sub-variables of the growth domain consisted of efficacy, positive emotion, self-growth, independence, rest and leisure.

**Key Words** : Parental happiness, ERG theory, expert content validity, developmental interaction

---

---

---

1) Corresponding Author: You, Ami, Assistant Professor, Soongui Women's College, 10 Sopa-Ro, 2-Gil, Jung-Gu, Seoul, Korea, 04628 / E-mail: youami98@sewc.ac.kr

##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 도출의 탐색 연구

유아미<sup>1)</sup> (숭의여자대학교, 조교수)

---

---

### < 요약 >

---

---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면서 자신도 발달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구성요인을 밝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여 개념과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에 의해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교육학 관련 교수 9명과 부모 교육 전문가 3명으로 총 12명이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부모 행복감이란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도 자녀와 발달적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둘째로 부모 행복감의 구성영역을 존재, 관계, 성장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존재영역에서는 건강, 경제력, 사회·문화적 환경, 외모 정체감을 구성요인으로, 관계영역에서는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타인 관계, 사회적 지지를 구성요인으로, 성장영역에서는 효능감, 긍정적 정서, 자기성장, 자립성, 여유·여가를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부모 행복감, 존재·관계·성장 이론, 전문가 내용타당도, 발달적 상호작용

---

---

1) 교신저자: 유아미, 조교수, (04628) 서울시 중구 소파로 2길 10, 숭의여자대학교 / E-mail: youami98@sewc.ac.kr  
논문투고일자: 2021. 5. 21 / 심사일자: 2021. 5. 24 / 게재확정일자: 2021. 6. 1

## I. 서론

행복은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인간의 공통적인 인간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다. 따라서 현대인들은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중시하게 되었고 행복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Hwang, 201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9)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행복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가족’, ‘건강’이 가장 먼저 제시되었다. Cho(2018)는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에서 행복감과 가족관계 간의 상관관계가 상위권의 지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인들은 가족이라는 환경에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가족 구성원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원활한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Koo & Kim, 2000). 또한, 부모와 긍정적인 애착형성 관계를 가진 유아는 행복함을 느끼며, 부모가 행복할수록 그들의 자녀인 유아도 더 행복함을 느낀다(Yi, 2015).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Kim & Han, 2006). 아동기의 행복감은 성인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모의 행복감과 직결되는 요인이다. 따라서 부모의 행복감은 가족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Lee, 2016).

행복에 관한 연구는 1960년에 사회과학 학자들이 사회경제적 수준, 인종, 교육 수준, 연령, 성 등의 요인들과 행복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되었다(Campbell et al., 1976). 그리고 그 이후에도 행복이라는 구성의 결정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인구 사회학적 특징에 관한 관심에 따라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Andrews & Withey, 1976; Cho, 1995; Veenhoven, 1991). 또한,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개인이 지닌 어떤 심리적 요인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를 성취, 자기수용능력, 긍정적 대인관계, 경제력, 자기수용과 가족정체성 등으로 본 연구도 있다(Kim et al., 2003; Ryff, 1989). Choi(1995)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욕구충족 수준과 창의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행복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했다(kook, 2001; Liu & Cho, 2020; Myers & Diener, 1995). 행복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한 요인을 찾는 연구는 진행되어왔지만, 가족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보이는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부모 행복감을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경향을 분석해보면, 어머니의 행복감 또는 아버지의 행복감과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복감에 대한 정서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Kim & Kim, 2010; Kim & Kim, 2014; Kim, 2015; Lee, 2017).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감이 낮을수록 자녀를 지도할 때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한다고 하였다(Kim & Kim, 2014). Kim(2010)은 어머니의 행복감과 자녀의 긍정적 정서 행동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았다. 어머니가 행복할수록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M. K. (2016). 은 자녀와 아버지의 친밀하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아의 행동조절 및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자녀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부모 행복감과 자녀 행복감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모 역할에 충실한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S. M. Kim, 2013; Song, 2013).

최근 해외에서 수행된 부모의 행복에 관한 연구(Feredooni et al., 2020)에서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는 행복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같이 지속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 행복감과 자녀와의 관계의 행복감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도 밝혀졌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였으며, 부모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인도 연구마다 달랐다. 이같이 부모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일관성 있는 준거를 제시하기가 어렵고 일반화의 한계도 보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는 주로 해외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역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가정은 그 나라의 상황과 문화가 반영된 주요 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가정의 특성을 반영하고, 우리나라 부모들의 행복감이 무엇이며 구성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외에서 개발된 행복감 측정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Diener, 1984), 삶의 만족도 척도(Diner et al., 1985), 심리적 안녕감 척도(Ryff, 1989), 옥스퍼드 행복질문지(Hills & Argyle, 2002) 등이 있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인 SWBS(Subjective well-being scale)에서는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였는데 객관적이고 규범적인 요소를 포함한 척도를 지적하고 행복의 주관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Diener, 1984). 또한, 삶의 만족도 척도로 SWLS(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개인이 자신의 총체적인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척도이다(Diner et al., 1985). Ryff(1989)는 자기 수용, 긍정적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율성, 환경통제력의 6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S)척도를 개발하였다. 이같이 기존에

개발되거나 연구된 행복감 측정도구는 해외 연구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므로, 한국의 부모 행복감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Lee & Suh, 2009; Sung, 2007). 행복을 생각하는데 있어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존재하며 언어, 문화, 사고방식에 따라 행복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있으므로(Oishi et al., 2013),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도 문화와 언어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집단주의적 한국 문화에서의 부모 행복감은 개인주의적 서양 문화와 달라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관계 의존성과 역동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Markus & Kitayama, 1991).

행복감 측정도구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접근을 통해 개발된 한국 성인 삶의 척도(Happy Life Scale) 연구가 있다(Kim et al., 2003).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발달 단계별로 행복감 측정도구를 주로 연구하였으며, 유아의 행복감 척도를 부모나 교사가 측정하는 연구(Lee, 2016; Lee & Kim, 2020), 유아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한 연구(Chung, 201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플로시 척도를 개발한 연구(Kim, 2017) 등이 있다. Hyun(2011)은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척도를 개발하였고, Shin(2007)과 Lee, S. Y. (2010)는 대학생의 행복 척도를 연구하였으며, Im(2008)는 한국 노인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였다. 교사의 행복감 척도 연구(Cho, 2011),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복감 척도 연구(Mun, 2012), 연극 종사자의 행복결정요인(Shon, 2013) 등과 같이 직업에 대한 행복감 척도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행복감에 대한 측정도구들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맞춰 있다. 행복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포함한 환경과 삶의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Han & Han, 2008). 행복의 측정은 특정 시기의 행복과 불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특성을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yff, 1989). 따라서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 발달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포함한 부모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족의 안정적인 관계는 부모로서 자신의 삶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부모 행복감 문제는 행복한 가정을 넘어 사회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부모 행복감 정도가 높을수록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게 되고,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Jung, 2008). 그리고 자녀는 사회적 및 정서적인 안정감을 통해 행복감을 더 느끼게 된다(Park, 2008). 결국,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Kim(2008)은 부모의 행복감 인식 수준에 관한 연구는 부모뿐만이 아닌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과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부모의 행복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와 발달적으로 상호작용을 해나가

는 존재로서의 부모의 행복감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영역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Han & Han, 2009).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행복은 일반 성인이 느끼는 행복과 분명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부모 행복은 가정이라는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적 의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Chung et al., 2013).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모 행복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부모 행복감을 측정하는 구성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관계의 중요 요소인 부모 행복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행복 그 자체 특성뿐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성장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포함한 부모 행복감 등을 모두 포함한 부모 행복감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이에 근거하여 부모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인을 탐색하고 변인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면서 자신도 발달한다는 관점에서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 하고 부모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행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욕구이론과 행복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Maslow, 1954; Shin & Johnson, 1978). 이들 연구에 따르면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은 행복해지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인간은 불행함을 느끼게 된다고 한다. 행복감의 정도가 욕구 만족에 따라 달라진다면 각각의 욕구들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Son, 2013). 다수의 연구자가 Alderfer(1969)의 존재·관계·성장 이론(ERG theory)을 기반으로 하여 행복감을 연구하였으며(Kim & Han, 2006; Oh, 2016; Son, 2013), 욕구와 행복에 관한 선행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감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부모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복의 요인에 대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영역을 제시한 Alderfer(1969)의 존재·관계·성장 이론(ERG theory)을 활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첫째, 부모 행복감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 행복감 개념

행복은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하려는 삶의 목표이며 가치이다. Aristotle는 행복을 생에서

의 의미이며 목적으로 보았으며, 그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 행위의 궁극적인 동기가 행복이라고 주장하였다(Kim et al., 2001).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하더라도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다르므로 사람들은 각자 행복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Kim et al., 2003). 학자들은 철학, 경제학, 심리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에서 행복을 정의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왔다. 이에 학문적 관점에 따라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Veenhoven, 2008).

Diener(1984)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SWB)이란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건강, 부, 명예 등 외적 조건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의 삶의 만족도, 정서적 요인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PWB)으로 행복을 표현하였는데, 심리적 안녕감이란 한 개인으로 경험한 긍정적인 정서, 만족감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이것은 삶의 질적 측면을 행복에 포함시킨 것으로(Ryff & Keyes, 1995), 심리적 안녕감을 위해서는 삶의 의미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Bauer et al., 2005). 따라서 행복의 구성요소를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환경의 통제력 요소로 보았다(Kim et al., 2003). Seligman & Csikszentmihalyi(2001) 행복의 구성요소를 긍정적 정서, 몰입, 긍정적 관계, 성취로 보았고 행복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1). 진정한 행복이란 정의가 다양하고 요소가 다르더라도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고 몰입하는 삶을 발견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Seligman, 2009).

국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가족과의 관계, 가정화목을 보았으며(Kim et al., 2012), 가족은 집단주의적 문화이며 그중에서 부모 자녀 관계를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으로 보았다(Park, 2005). 부모로서의 진정한 행복이란 자녀 양육의 보람을 느끼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Kwon Sunmi, 2008). 부모는 부모됨의 경험과 자녀의 발달적 변화와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지며(Kim et al., 2017)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Kim(2008)은 부모가 인지한 행복감의 정도에 따라 자녀가 인지한 행복감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감이 높은 부모와 함께할 때 행복한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자녀는 가족이라는 1차적 사회집단에서 부모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 배운 사회적 역할을 인지하기에 부모 행복감과 자녀 행복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Park, 2014).

부모 행복감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면서 전반적 과정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마음이며(Kim, 2013), 부모 행복감은 특히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부모의 특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Ko, 2011; Park, 2007). Jo(2016)는 부모 됨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개인의 성장과 가족과의 질적 관계가 중요한 원천이라고 정의하였다. Lee(2019)는 부모 행복감의 요인을 ‘가족과의 행복’, ‘개인의 행복’, ‘자녀와의 행복’, ‘건강과 행복’, ‘환경과 행복’으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 행복감이란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와 함께 자신이 성장해가면서 느끼는 정서라 정의하였다.

## 2. 존재 · 관계 · 성장 이론(욕구이론)

욕구에 대한 만족감은 행복감과 연결되어 있고, 욕구의 결핍이 나타나면 인간은 불행함을 느낀다고 주장하였다(Maslow, 1954).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으며 욕구를 통해 동기 부여 된다. 인간의 욕구나 요구에 관해서 다양한 학자들이 욕구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욕구 이론가 Murray(1938), Maslow(1968), Alderfer(1972)에 따르면 욕구의 충족 여부에 따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Kim & Han, 2006). Murray(1938)는 배고픔, 갈증, 성욕 등과 같은 12가지의 생리적 욕구와 성취, 지배, 과시 등 28가지 심리적 욕구에 관해 제안하였다. Maslow(1968)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 유형의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 안전의 욕구(safety needs), 애정과 소속의 욕구(love and belonging needs), 존중 욕구(esteeem needs), 자기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로 나누었다.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구조를 이루고 있어 하위 욕구가 만족 되어야 상위 욕구가 생긴다고 주장하였으며(Maslow, 1970), Maslow의 욕구 이론은 인간 욕구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한편, Alderfer(1972)는 Maslow(1968)의 단계별 욕구이론을 비판하고 욕구위계 단계를 수정하여 인간의 욕구를 크게 존재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성장욕구(growth needs) 등 3단계로 구분하였고, 두 가지 욕구도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Schneider & Alderfer, 1973). Maslow의 욕구계층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Alderfer(1972)의 존재, 관계, 성장욕구 ERG 이론은 욕구계층을 현실적으로 설명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05). Maslow(1968)의 이론과 비교해 보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은 욕구가 3단계로 위계적이지 않으며 특정 순서로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여러 가지 욕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높으며 탄력적이다(Kim et.al., 2014b). Alderfer(1972)의 ERG 이론은 Maslow 욕구계층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여 실증연구에 적절하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이 이론을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한 만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Oh & Lee, 2017). Oh(2016)는 욕구 충족에 따



라 행복감과 관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세 가지 욕구영역인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에서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Kim & Han(2006)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행복에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면서 Alderfer(1972)의 존재·관계·성장 이론(ERG)으로 재분류하여 결과를 제시하였고, Son(2013)은 연극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을 측정하고 행복결정요인을 추출함에 있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Shin & Kim(2019)은 중년여성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 행복에 대한 요인 측정 개발에 있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Oh(2016)는 행복의 결정요인을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행복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연결함으로써 행복연구와 욕구이론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Alderfer(1972)의 ERG 이론은 단계별 욕구이론이 아니라 Maslow의 욕구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이론이며,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행복 구성요인을 ERG이론에 근거해 분석하였다는 점, 최근 욕구와 삶의 만족 혹은 행복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는 추세(Lee et al., 2014; Park & Kim, 2011)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수용하여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Alderfer(1972)의 행복감의 정의에 따라 개인이 추구하는 존재욕구, 관계욕구, 성장욕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3.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구성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Alderfer(1972)의 ERG 이론의 존재, 관계, 성장 등과 같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에 대한 세부적인 요인 및 내용을 제시하였다(Butler, Glenn & Kern, 2019; Choi, 2009; Chung, 2014; Diener, Emmons, 1984; Diener & Lucas, 2000; Hills & Argyle, 2002; Han, 2014; Jeon, 2010; Kim, 2003; Kim, 2008; Kim, 2009; Kim, 2016; Kim et.al., 2014a; Kim & Han, 2006; Ko, 2011; Kwon Sukman, 2008; Yi, 2015; Min, 2018; Moon, Lee, Park, 2009; Noh, 2013; Ryan & Deci, 2001; Ryff, 1989; Ryff & Singer, 2000; Shin, 2015; Shin, 2007; Song, 2013; Woo, 2007; Yoon, 2017).

첫째, 부모 행복감에 대한 존재(existence needs) 범주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요인은 건강, 경제력, 사회 문화적 환경, 외모 관리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요인은 질병이 없고 건강에 자신 있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경제력은 자녀 양육 및 학업성취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며, 사회 문화적 환경은 자녀 양육에 적절한 교육, 문화 및 사회적 환경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외모 관리는 부모 자신의 신체적 외모에

대해 인식하고 조절하며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부모 행복감에 대한 관계(relatedness needs) 범주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타인 관계, 사회적 인정과 지지, 환경적 통제로 나타났다. 자녀 관계는 자녀와 원활한 상호작용과 대화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이며, 배우자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신뢰가 두텁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공동 책임감을 느끼며 함께 양육하는 정도로 제시하였다. 부모 관계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양육지원을 받는 정도이며, 타인 관계는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양육지원자의 존재 여부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정과 지지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이며, 환경적 통제는 주변 환경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처리하는 능력으로 표현되었다.

셋째, 부모 행복감에 대한 성장(growth needs) 범주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요인으로는 성취감, 효능감, 긍정적 정서, 자기 성장, 자립성, 여가 및 쉼, 자아존중감, 종교, 몰입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취감은 부모로서 살아온 삶에 대해 만족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정도이며, 효능감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녀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태도로 제시하였다. 긍정적 정서는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어려움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며, 자기 성장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자립성은 양육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도로 나타나며, 여가 및 쉼은 일상을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만끽하며 문화생활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부모로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도로 표현되며, 종교는 현재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종교적 가르침에 살아가려는 정도로 제시하였다. 몰입은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통해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며,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 도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교육학 관련 교수 9명, 부모교육 전문가 3명으로 총 12명을 전문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를 통한 내용타당도의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가 패널의 선정(panel selection)이 중요하다.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는 표준 준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Murray & Hammons(1995)는 10~20명의 전문가 집단만으로도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전문가 집단의 구성은 패널의 크기보다는 패널의 전문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Tak, 2007).

<표 1> 내용타당도를 위한 전문가 구성

구분	전문분야	직위	경력	학력	성별	연령	자녀양육경험
1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30	박사	여	60대 이상	없음
2	상담교육학 전공	교수	25	박사	남	60대 이상	있음
3	교육사회학 전공	교수	35	박사	남	60대 이상	있음
4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30	박사	여	50대	있음
5	평생교육학 전공	교수	11	박사	여	40대	있음
6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10	박사	여	50대	있음
7	평생교육학 전공	교수	7	박사	여	40대	있음
8	유아교육 전공	교수	20	박사	여	40대	있음
9	교육심리학 전공	교수	15	박사	여	40대	없음
10	부모교육 전문가	강사	20	박사	여	50대	있음
11	부모교육 전문가	컨설턴트	15	박사	남	50대	있음
12	부모교육 전문가	강사	5	박사	여	50대	있음

##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복감 측정 자료의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탐색연구로 행복감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통해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부모의 행복감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부모 행복감 개념은 부모관련 연구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는데 특히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기반으로 부모들의 행복을 위한 존재욕구와, 관계욕구, 성장욕구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구성요인을 찾아보았다.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조사는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와 부모 행복감과 관련된 구성요인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12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전문가 패널로부터 참여 의사 승인을 받은 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메일(e-mail)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조사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전문가 조사지를 구성하여 2021년 1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Likert 5 점 척도를 사용하여, 각 개념 정의에 대한 타당성 정도를 평가하고, 기타 수정, 추가, 삭제, 통합의 차원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와 수정 및 기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개방적 설문 방식을 병행하여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 평균(M), 표준편차(SD), CVR 값 등을 산출하는 기술통계를 진행하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가 개발한 CVR(content validity ratio)을 산출하여 패널 수에 따른 최소값을 상회하는지 검토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는데, 전문가 수에 따른 CVR 최소값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패널로 12명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CVR 최소값이 .56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CVR값이 .56( $p < .05$ ) 이상인 구성요인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여 선정하였고, CVR값이 .56( $p < .05$ ) 이하인 구성요인은 전문가 의견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구성요인을 수정·보완하였다.

<표 2>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패널수(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
CVR 최소값	.99	.99	.99	.78	.75	.62	.59	.56	.54	.51	.49	.42

출처: Lawshe(1975), p. 568.

## IV. 연구결과

### 1. 부모 행복감 개념과 구성요인

#### 가. 부모 행복감 개념

부모 행복감에 대한 구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모 행복감 개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부모 행복감의 개념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립해야만 그에 대한 구성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부모 행복감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전문가 내용타당도 설문을 진행하여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의 재정의의 확립하였다. 12명의 전문가 집단에서 도출한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진술하였으며, 이에 전문가 평가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내용타당도를 분석하고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부모 행복감 개념을 수정·보완하였다. 부모 행복감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아래 <표 3>에 지시한 것과 같이 CVR은 .50으로 나타났다. 부모 행복감 내용타당도를 위해 필요한 최소값 .56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의견을 살펴보면,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에 대한 문제보다는 ‘부모의 역할 모호성’에 대한 수정요구 사항이 대부분이었다.

<표 3> 부모 행복감 전문가 내용타당도

구분	항목	M	SD	CVR	CVI
부모 행복감	개념	4.167	.835	.50	.75

이에 부모 역할의 시기를 영유아의 부모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부모까지로 확대 구분하는 것이 본 연구에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부모 행복감 개념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였다.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 후 수정된 부모 행복감 개념은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부모 행복감 개념의 수정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부모 행복감 개념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의 양육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도 자녀와 발달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도 자녀와 발달적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 나.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 설정

본 연구는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 행복감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구성요인을 추출하였다.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은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존재, 관계, 성장의 3가지 구성영역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먼저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은 부모 행복감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요인들로 선별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Alderfer(1972)의 욕구이론을 적용하여 존재, 관계, 성장으로 분류하였다. 각 영역별 구성요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내용타당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설문조사지는 부모 행복감에 대한 구성영역 및 영역별 구성요인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와 구성요인으로써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별 평균( $M$ ), 표준편차( $SD$ ), CVR값을 산출하여 검토하였으며, 부모 행복감 구성영역별 구성요인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전문가 내용타당도

구분	항목	$M$	$SD$	CVR	CVI
존재 (E) Existence	건강	4.500	.798	.67	.83
	경제력	4.417	.996	.67	.83
	사회·문화적 환경	4.167	1.030	.50	.75
	외모 관리	3.083	1.165	-.33	.33
관계 (R) Relatedness	자녀 관계	4.583	.793	.67	.83
	배우자 관계	4.000	1.348	.33	.67
	부모 관계	4.250	.965	.33	.67
	타인 관계	3.833	1.193	.33	.67
	사회적 인정과 지지	4.167	1.267	.50	.75
	환경적 통제	3.833	1.193	.33	.67
구성 요인	성취감	4.250	.866	.50	.75
	효능감	4.583	.793	.67	.83
	긍정적 정서	4.500	.798	.67	.83
	자기성장	4.417	.793	.67	.83
	자립성	4.167	.835	.50	.75
	여가, 쉬	4.000	1.044	.33	.67
	자아존중감	4.667	.651	.83	.92
	종교	2.750	1.228	-.50	.25
	몰입	3.417	1.240	-.17	.42

Alderfer(1972)의 ERG 이론의 3가지 구성영역 중 첫 번째 존재영역의 구성요인에서는 ‘건강’, ‘경제력’ 등이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CVR=.67). 건강과 경제력은 행복감을 주는 기본요소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으로서 본 연구에서 밝힌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

다. Kim & Kim(2008)은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만족감이 높고 행복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Kwon Sukman(2008)은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제외하고 행복을 논할 수 없다고 제시하면서 행복감의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을 제시하였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CVR값이 .50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구성요인의 문구 수정에 대한 지적이어서 이를 수정 반영하였다. House et al.(1988)의 연구에서 정서적, 정보적 지원이 높을수록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구성요인으로 선정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표 5>와 같이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외모 관리’의 CVR 값은 -.33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모든 전문가 의견은 ‘외모 관리’의 이론적 근거 여부가 타당한지와 구성요인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었다. ‘외모 관리’에 대한 내용은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구성요인을 찾아 제시한 내용이었으며,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제시된 부모 행복감 개념 정의에서 행복감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임을 제시(lee, 2009)하였기 때문에 ‘외모 관리’를 ‘외모 정체성’으로 구성요인의 명칭을 수정하였다.

두 번째 관계영역의 구성요인인 ‘배우자 관계’와 ‘부모 관계’와 ‘타인 관계’에 대한 CVR 값은 .33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12명의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은 양육지원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으므로 구성요인인 ‘타인 관계’의 내용을 ‘부모역할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타인과의 관계’로 추가하여 수정하였다. Cobb(1976)은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포괄적인 긍정적인 자원으로 관계욕구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영역에서 부모로서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타인 관계’ 등을 제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는 친밀한 부부관계는 가족 환경에서 가족기능을 편안하게 제공하고 유능한 부모역할을 제공하고 밝힌 연구(Kim & Chong, 2011)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녀와의 관계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Kim & Go(2011)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사회적 인정과 지지’에 대한 CVR값은 .50으로 .56보다 낮으나 구성요인의 명칭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지지’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Lee, Y. H. (2013)는 관계욕구로써 사회적 지지는 개인과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며, 개인이 대인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임을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관계영역의 ‘환경과 통제’ 구성요인은 CVR값이 .33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나 관계의 영역의 하위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요인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 성장영역 구성요인에서 ‘성취감’의 CVR값은 .50으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효능감’은 .67로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성요인의 개념이 비슷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취감과 효능감의 구성요인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효능감’을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자기성장’(CVR=.67)과 ‘자아존중감’(CVR=.83) 등의 구성요인은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성요인의 개념이 비슷하다는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표 6>과 같이 ‘자기성장’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구성요인 개념을 구분하고 수정하였다. ‘종교’(CVR=-.50)와 ‘몰입’(CVR=-.17)의 내용타당도는 내용타당도 최소값인 .56보다 낮게 나타났다. Lee & Lee(2002)는 종교가 있는 경우 심리적 안녕수준이 높아짐을 나타냈고, Moon et al.(2009)은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 특성 중 성별, 연령, 직업, 종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행복감 요인은 사회 인구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특성인 심리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행복감의 성장 요인으로써 몰입은 어떤 행위에 깊게 몰두하는 심리적인 상태로 즐거움이나 행복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Lee(2010)는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사실을 행복해하며 지속되기를 원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종교’와 ‘몰입’에 대한 연구내용은 본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부모라는 대상에 대한 행복감 요인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성장영역의 구성요인에서 삭제하였다.

본 연구에서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적용하여 존재, 관계, 성장의 영역으로 구성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 내용타당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표 6>과 같다.

<표 6>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의 조작적 정의

구성영역	구성요인	조작적 정의
존재(E)	건강	부모로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체력이 있으며, 현재 특별한 질병이 없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낌
	경제력	자녀 양육과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사회 문화적 환경	자녀 양육에 적절한 교육,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을 지원함
관계(R)	외모 정체감	부모로서 자신의 신체적 외모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며 스스로 평가함
	자녀 관계	자녀를 이해하고 있으며,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
	배우자 관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공동 책임감을 느끼고 함께 양육하는 정도
	부모 관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으로 적극적인 양육지원을 받는 정도		
타인 관계	부모역할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위와 인정을 받으면서 자녀를 양육과 교육함에 있어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는 정도	
효능감	자녀의 발달수준에 맞추어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효과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다는 지각	
긍정적 정서	부모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정도	
성장(G)	자기성장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와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정도
	자립성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도
여유·여가	부모로서의 일상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만끽하며 취미생활 및 문화생활에 참여하는 정도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를 자녀를 둔 성인기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존재이며, 동시에 자신도 생애 발달과정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자녀와 발달적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부모가 지니는 부모로서의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부모 행복감과 관련된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관해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행복감의 개념을 ‘부모라는 존재로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고, 자녀, 배우자 등 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신도 자녀와 발달적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해간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이는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발달해나가는 존재라는 점을 수용하고,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닌 존재라는 인본주의적 관점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상보적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녀의 발달적 상호작용과정에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서 부모를 부모 행복감의 개념 정의에 포함하였다. Galinsky(1981)는 부모 됨을 이해하기 위해 자녀의 발달적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Lee(2009)는 행복감이란 개인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부모 역할뿐만 아니라 개별주체로서 느끼는 부모의 행

복감을 표현한 개념 정의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Alderfer(1972)의 ERG 이론을 바탕으로 부모 행복감의 구성영역을 존재영역, 관계영역, 성장영역으로 분류하고 각 영역별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존재영역에서는 ‘건강’, ‘경제력’, ‘사회·문화적 환경’, ‘외모 정체감’을 4가지 구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이는 Rothwell & Copen(2003), Kim & Han(2006)의 연구에서도 존재의 영역에 ‘건강’, ‘경제력’, ‘외모’, ‘사회·정치·문화 환경’ 등이 제시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hung(2014)은 신체적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의 유지에 대한 ‘외모’ 요인을 행복에 필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모 정체감’도 부모 행복감에 필요한 요인임을 판단할 수 있다.

관계영역에서는 ‘자녀 관계’, ‘배우자 관계’, ‘부모 관계’, ‘타인 관계’, ‘사회적 지지’를 5가지 구성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기질과 특성이 강조되는 서구 문화권의 행복 결정요인인 외향성, 낙관적 성격, 통제감, 자긍심 등(Myers & Diner, 1995)과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행복으로 생각하고 인간의 상호의존을 강조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을(Hyun, 2004) 잘 반영하였다.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인의 행복 결정 중요 요인을 ‘가족관계’로 보았으며(Koo & Kim 2000), 가족과의 화목,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신뢰와 사랑을 행복 요인으로 제시된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Chung et al., 2013; Kim et al., 2003). 부모의 행복감은 긍정적인 배우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치고(Jeong, 2013), 부모의 행복요인으로 자녀의 학력이나 능력 계발에 필요한 질 좋은 환경과 지역사회 편의시설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는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과의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Park et al., 2018).

성장영역에서는 ‘효능감’, ‘긍정적 정서’, ‘자기 성장’, ‘자립성’, ‘여유·여가’ 등의 5개 구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부모 효능감이 높으면 자녀를 대할 때 긍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한다(Mondell & Tyler, 1981). 행복감의 구성요인 중에서 여가만족도가 높고 여가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크며(Ryu et al., 2011),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은 행복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Shin,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부모가 지니는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부모 행복감의 구성요인을 존재, 관계, 성장이라는 세 가지 구성영역에서 총 14개의 구성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은 부모 행복감에 관해 선행연구 분석과 문헌고찰, 그리고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등의 절차를 통해 부모 행복감에 대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

하고, 구성요인을 타당하게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까지 부모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개발된 검사를 번역해서 사용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과 문화를 고려하여 부모 행복감을 정의하고 구성요인을 도출한 연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 행복감 측정도구들은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타당화한 척도이거나 부모와 다소 거리가 먼 요소들로 측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선행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부모 행복감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후속연구로 우리나라 부모의 행복감 측정도구를 우리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게 된다면, 부모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과 어떤 요인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점에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부모들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 행복감을 정의함에 있어서 부모-자녀 간의 발달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부모 행복감이 미치는 자녀의 심리적 발달과 가족관계에 대한 영향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연구까지 진행된다면 향후 행복한 가족 문화와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Alderfer, C. P. (1969). An empirical test of a new theory of human need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2), 142-175. [https://doi.org/10.1016/0030-5073\(69\)90004-X](https://doi.org/10.1016/0030-5073(69)90004-X)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Human needs in organizational settings*.
- Andrews, F., & Withey, S.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Plenum.
- Bauer, J. J., McAdams, D. P., & Sakaeda, A. R. (2005). Interpreting the good life: Growth memories in the lives of mature, 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203-217. <https://doi.org/10.1037/0022-3514.88.1.203>.
- Butler, E. L., Galle, G. H., & Kerns, J. P. (2019). Influence of nitrogen rate and timing, fungicide application method, and simulated rainfall after fungicide application on brown patch severity in tall fescue. *Crop, Forage & Turfgrass Management*, 5(1), 1-6. <https://doi.org/10.2134/cftm2019.03.0018>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Cho, B. K.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happiness index*.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Research Society. ☞ 국문: 조병구(2018). **국민행복지표 개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Cho, Y. K. (2011).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eacher's happiness sca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hung University. ☞ 국문: 조연갑(2011). **교사의 행복척도 개발 및 타당화**.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Choi, K. H.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ed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최경희(1995). **육구 충족과 주관적 안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Choi, Y. J. (2009). *Development of a program to enhance happiness for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Based on Seligman's character strength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국문: 최윤정(2009). **유아교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Seligman의 강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Chung, K. S. (2014). Happiness perceptions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 on past and present happiness, conditions of

- happiness and happiness discrepancies. *The Korean Journal Child Education*, 23(3), 105-125. ☞ 국문: 정계숙(2014). 유아-청소년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행복: 어린 시절과 현재의 행복감, 행복 조건 및 행복 괴리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23(3), 105-125.
- Chung, K. S., Park, J. K., Choi, E. S., Seo, S. B., & Park, H. K. (2013). A study of factors which influence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mothers of young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1), 153-174. <http://doi.org/10.18023/kjece.2013.33.1.008> ☞ 국문: 정계숙, 박재국, 최은실, 서보순, 박희경(2013). 장애 유아·비장애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아교육연구*, 33(1), 153-174.
- Chung, K. S., Park, J. K., Park, S. H., Yoo, M. S., Choi, E. S., & Seo, B. S. (2013).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aternal happiness scale fo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1), 27-43. <http://doi.org/10.6115/khea.2013.51.1.027> ☞ 국문: 정계숙, 박재국, 박수홍, 유미숙, 최은실, 서보순(2013)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1), 27-43.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https://doi.org/10.1097/00006842-197609000-00003>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https://doi.org/10.1037/0022-3514.47.5.1105>
- Diener, E., & Lucas, R. E. (2000). Explaining differences in societal levels of happiness: Relative standards, need fulfillment, culture, and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41-78. <https://doi.org/10.1023/A:1010076127199>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Fereydooni, A., Heidari, A., Saadi, Z., Ehteshamzadeh, P., & Pasha, R. (2020). Comparison of effectiveness of mindfulness and happiness training in promoting parent-child interaction case study: Mothers of anxious preschool children in Shahrekord 2018. *Journal of Community Health Research*, 9(1), 37-45. <https://doi.org/10.18502/jchr.v9i1.2573>
- Galinsky, E. (1981). *Between generations: The six stages of parenthood*. Times Books.
- Han, J. H. (2014).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n early childhood

- teachers'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8(4), 271-287. 국문: 한종화(2014).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성 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8(4), 271-287.
- Han, M., & Han, S. Y. (2008). A quantitative study of validating Shinmyeong.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7(1), 259-280. 국문: 한민, 한성열(2008). 신명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259-280.
- Han, M., & Han, S. Y. (2009). The happiness as a cultural concept: Understanding shinmyeong.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5(1), 81-94. 국문: 한민, 한성열(2009). 신명나는 삶: 한국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5(1), 81-94.
- Hills, P., & Argyle, M. (2002). The oxford happiness questionnaire: A compact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7), 1073-1082. [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https://doi.org/10.1016/S0191-8869(01)00213-6)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https://doi.org/10.1126/science.3399889>
- Hwang, H. I. (2013).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teacher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157-180. 국문: 황해익(2013).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교사 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157-180.
- Hyun, J. S. (2011). *A study of the theoretical discourse and scale development on the happiness among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국문: 현정수(2011). **청소년 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재구성 및 척도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Hyun, K. J. (2004). An exploratory study of sources and themes of happiness among Koreans: A longitudinal approach. *Mental Health & Social Work*, 18, 60-100. 국문: 현경자(2004).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의 근원과 주제에 대한 종단적 탐색. **정신보건과 사회산업**, 18, 60-100.
- Im, E. K. (2008).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Korean old peop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국문: 임은기(2008). **한국 노인의 행복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Jeon, K. S. (2010). *Well-being of middle-aged Korean: Development of scales related to happiness and meaning of life, and comparisons between grou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국문: 전경숙(2010).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Jeong, S. M. (2013). *The Influences of job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couple relationship on happiness among middle-aged dual-income couples with adolescent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국문: 정상미(2013). **청소년기 자녀를 둔 맞벌이 중년기 부부의 직업,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 Jo, S. A. (2016). *The relations between meaning of family and happi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 국문: 조설애(2016). **가족 의미의 양면성과 행복과의 관계: 중년 부모와 청년 자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Jung, E. S.(2008). *The effects of parental care and overprotec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depression: The roles of hardiness and perfectionism as medi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국문: 정은선(2008). **부모의 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인성과 완벽주의의 매개역할**.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Kim, A. Y., Park, B. K., Kim, S. J., Rhee, S. H., & Doh, H. S. (2017). A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parenthood of mothers with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8), 161-193. <http://doi.org/10.21509/KJYS.2017.08.24.8.161> ☞ 국문: 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2017).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8), 161-193.
- Kim, D. R.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happiness and parents'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국문: 김도란(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Kim, D. R., & Kim, J. W. (2008).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that of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6), 311-333. ☞ 국문: 김도란, 김정원(2008). **유아의 행복감과 부모의 행복감 간의 관계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11-333.
- Kim, H. S., Lee, S. I., Yoon, S. Y., Kim, Y. R., & Kim, H. S. (2005). Female leaders in college: The self-reported leadership of male and female professor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0(3), 293-319. ☞ 국문: 김혜숙, 이선이, 윤소연, 김영래, 김호섭(2005). **대학의 여성 리더: 남녀 교수의 리더십 자기 지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3), 293-319.
- Kim, J. R. (2013).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happ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김주리(2013).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Kim, J. R., & Kim, N. H. (2014). Relations among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4(1), 19-32. ㉮ 국문: 김주리, 김남희(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1), 19-32.
- Kim, M. H., Moon, J. H., & Seong, K. O. (2014b). A study on subjective well-being and Influential factors across different life cycles in adulthood: Application of alderfer's ERG theor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4(4), 857-875. ㉮ 국문: 김미혜, 성기욱, 문정화(2014) 성인의 생애주기별 주관적 행복감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 적용. *한국노년학*, 34(4), 857-875.
- Kim, M. H., Seong, K. O. & Moon, J. H., (2014a).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intention to participate in voluntary activities for later life of the baby boome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6, 83-109. <https://doi.org/10.21194/kjgsw.66.201412.83> ㉮ 국문: 김미혜, 성기욱, 문정화(2014). 베이비부머의 노후 자원봉사 참여 결정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6, 83-109.
- Kim, M. J.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young children's attachment and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국문: 김민정(2009).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Kim, M. J., & Kim, J. W. (2010).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others' happiness and preschoolers' attachment stability, and peer competenc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Educare Administration*, 14(2), 5-28. ㉮ 국문: 김민정, 김정원(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유아의 애착안정성 및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4(2), 5-28.
- Kim, M. K. (2016). *The effects of father-child interaction play on the aggressiveness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국문: 김미경(2016). 아버지-자녀 상호작용 놀이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Kim, M. S., & Han, Y. S. (2006).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the Korean. *Survey Research*, 7(2), 1-38. ㉮ 국문: 김명소, 한영석(2006). 한국인의 행복지수 공식 개발. *조사연구*, 7(2), 1-38.
- Kim, M. S., Kim, H. W., & Cha, K. H.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 국문: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Kim, M. S., Kim, H. W., Cha, K. H., Im, J. Y., & Han, Y. S. (2003).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415-442. ☞ 국문: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임지영, 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Kim, N. Y., & Chong, Y. S. (2011). The effects of attachment, care-giving, and positive illusion upon marital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middle-aged married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8*(2), 59-81. ☞ 국문: 김나영, 정영숙(2011). 중년기 부부의 애착 유형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보살핌과 긍정적 환상이 결혼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8**(2), 59-81.
- Kim, S. H. (2015).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and mother's happiness with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 국문: 김산하(2015). 아버지 양육참여와 어머니 행복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Kim, S. H. (2016). A study on the use of strengths by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ose moth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0), 269-288. <http://doi.org/10.22251/jlcci.2016.16.10.269> ☞ 국문: 김선형(2016). 유아기 자녀 어머니 변인에 따른 강점활용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0), 269-288.
- Kim, S. H. (2017). *A development of the measures of the flourish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 국문: 김선형(2017). 유아기 자녀 어머니의 행복 플로리시 척도 개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Kim, S. M. (2013).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al role satisfaction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 국문: 김상미(201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 Kim, U. C., Park, Y. S., & Baak, S. Y. (2012).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9*(2), 197-225. ☞ 국문: 김의철, 박영신, 박선영(2012). 청소년과 부모가 지각한 행복과 행복의 조건 및 불행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해석. **인간발달연구, 19**(2), 197-225.
- Kim, U. M.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Infant's social · emotional cap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 국문: 김유미(2010). 어머니의 행복감과 영아의 사회 · 정서 능력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Kim, Y. N., & Ko, J. H. (2011). Self- and spouse-enhancement, subjective happiness, and

- marital quality in married coupl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167-182. <https://doi.org/10.21193/kjspp.2011.25.2.009> ㉮ 국문: 김영남, 고재홍 (2011). 자기고양과 배우자 고양이 행복감과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167-182.
- Ko, Y. J. (2011). *The relationships among the happiness of mothers, their parenting behavior and the self efficacy of their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 국문: 고예진(2011).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Koo, J. S., & Kim, U. C. (2008).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adul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2), 77-100. ㉮ 국문: 구재선, 김의철(2000). 한국인의 행복경험에 대한 토착문화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2), 77-100.
- Kook, S. H. (2001). *The development of happy-qol scale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c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국문: 국승희(2001).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질 모델 개발**.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9). *2018' Comprehensive child survey. Kore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17). ㉮ 국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19-17).
- Kwon, S. M. (2008). *Achievement and happi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국문: 권순미(2008). **성취도에 따른 고등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Kwon, S. M. (2008). *Positive psychology*. Hakjisa. ㉮ 국문: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https://doi.org/10.1111/j.1744-6570.1975.tb01393.x>
- Lee, E. J. (2010).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happiness scale for young children: Based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국문: 이은주(2010). **유아행복척도개발연구: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Lee, E. K. (2013).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 sup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이은경 (2008).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Lee, J. E., Kang, M. S., & Lee, S. J. (2014). The effects of urban risk perception on happiness: The case of Seoul citizen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18(2), 559-588. ☞ 국문: 이지은, 강민성, 이승중(2014). 도시위험인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주민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2), 559-588.
- Lee, M. K. (2017). *The influence of father's self-esteem and happiness a on prosociality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국문: 이민경 (2017).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유아의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Lee, S. J., & Kim, K. C.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happiness scale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1), 327-353. <http://doi.org/10.15409/riece.2020.22.1.15> ☞ 국문: 이성주, 김경철(2020). 유아 행복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327-353.
- Lee, S. S., & Lee, K. J. (2002). The stress,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1-20. ☞ 국문: 이신숙, 이경주(2002).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22(1), 1-20.
- Lee, S. Y.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happiness scale fo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7(2), 107-122. <http://doi.org/10.16983/kjsp.2010.7.2.107> ☞ 국문: 이수연(2010). 대학생의 행복 척도 개발 및 구인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7(2), 107-122.
- Lee, Y. H., & Suh, E. K. (2009). Is emotion suppression that bad? comparing the emotion suppres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link in two culture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3(1), 131-146. <http://doi.org/10.21193/kjspp.2009.23.1.008>. ☞ 국문: 이은경, 서은국(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문화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Lee, Y. S.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happiness scale of parents with adolescenc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 국문: 이영선 (2019).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행복 척도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Lee, K. M. (2009).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happines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8(1), 165-181. ☞ 국문: 이정민 (2009). 유아행복교육의 가능성 탐색 연구. *어린이미디어연구*, 8(1), 165-181.
- Lee, K. M. (2016). Focus group interview for exploring constructive components and valid assessment method of happines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3(1), 499-514. <http://doi.org/10.18023/kjece.2016.36.1.022> ☞ 국문: 이정민

- (2016).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통한 유아기 행복의 구성요인과 측정방법 탐색. **유아교육연구**, 36(1), 499-514.
- Liu, Y. M., & Cho, G. P. (2020). The mediating effect of happi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reativity in Chinese middle school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219-245. <http://doi.org/10.34226/gcl.2020.10.2.219>. ☞ 국문: 유옥민, 조규관(2020). 중국 중학생의 그릿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행복감의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219-245.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rper & Row.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3rd ed). John Wiley & Sons.
- Maslow, A. H. (1970). *Religion, values and peak experience*. Viking.
- Min, H. J. (2018). *The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emotional expression on young children'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국문: 민혜진(2018). 어머니의 행복감과 정서표현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 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73-78. <https://doi.org/10.1037/0012-1649.17.1.73>
- Moon, S. K., Lee, M. Y., & Park, S.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lbeing of par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137-153. ☞ 국문: 문수경, 이무영, 박상희(2009).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4(4), 137-153.
- Mun, S. Y. (2012). *Development of happiness scale for social work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il University &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 국문: 문승연 (2012). **사회복지사 행복척도의 개발**. 박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Oxford Univ Press.
- Murray, J. W.,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436. <https://doi.org/10.1353/rhe.1995.000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https://doi.org/10.1111/j.1467-9280.1995.tb00298.x>

- Noh, J. A. (2013). *Perceptions and analysis on the factors influencing of happiness for parents of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국문: 노진아(2013). **장애유아 부모의 행복감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Oh, M. J. (2016).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ffecting happiness: Focused on the E.R.G. the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 국문: 오민지(2016).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lderfer의 E.R.G.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Oh, M. J., & Lee, S. Y. (2017). A study on the determinants affecting happiness: Focused on the E.R.G. Theory.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9(3), 489-508. <http://doi.org/10.21888/KPAQ.2017.9.29.3.489> ☞ 국문: 오민지, 이수영(2017). 행복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lderfer의 E.R.G.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9(3), 489-508.
- Oishi, S., Graham, J., Kesebir, S., & Galinha, I. C. (2013). Concepts of happiness across time and cultur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5), 559-577. <https://doi.org/10.1177/0146167213480042>
- Park, H. J. (2008). *Comparis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happiness according to the form of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국문: 박현주(2008). **가족 형태에 따른 초등학교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행복감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Park, S. E., Seo, B. Y., & Lee, C. W. (2018). Educational divide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and parents on Suseong district in Daegu. *Journal of Regional Studies*, 26(2), 139-161. <http://doi.org/10.22921/jrs.2018.26.2.008> ☞ 국문: 박상은, 서봉연, 이철우 (2018). 대구 수성구 교육격차와 학생 학부모 특성 연구. **지역사회연구**, 26(2), 139-161.
- Park, S. Y. (2005). *The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박수영(2005). **아동의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과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Park, S. Y. (2007). *Mother's life satisfaction and parenting behavior as related to chil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국문: 박서영 (2007). **어머니의 삶의 만족감 및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Park, Y. J. (2014). *A study on relation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The mediating role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uksung Women's University. ☞ 국문: 박윤정(2014). **유아의 기질과**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 Park, Y. M., & Kim, E. J. (2011). Effects of security needs of citizens utilizing CCTV on the life satisf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7), 437-447. <http://doi.org/10.5392/JKCA.2011.11.7.437> 국문: 박영만, 김정은(2011). CCTV를 통한 시민들의 안전욕구충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437-447.
- Rothwell, C., & Cohen, P. (2003). *Happiness is no laughing matter*. Petecohen.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141>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https://doi.org/10.1037/0022-3514.57.6.1069>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https://doi.org/10.1037/0022-3514.69.4.719>
- Ryff, C. D., & Singer, B. (2000). Interpersonal flourishing: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ni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1), 30-44.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401\\_4](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401_4)
- Ryu, S. A., Kim, K. M., & Choi, I. C. (2011). The longitudinal effect of leisure on happiness and health in midlife.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7(4), 415-434. 국문: 류승아, 김경미, 최인철(2011). 중년기 여가생활이 행복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4), 415-434.
- Schneider, B., & Alderfer, C. P. (1973). Three studies of measures of need satisfaction in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8(4), 489-505. <https://doi.org/10.2307/2392201>
- Seligman, M. E. P. (2009).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I. J. Kim, Trans.). Mulpule.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국문: Seligman, M. E. P. (2009). *긍정심리학* (김인자 역). 긍정심리학. 물푸레. (원서출판 2006).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1).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Reply. *American Psychologist*, 56(1), 5-14.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 475-492. <https://doi.org/10.1007/BF00352>

- Shin, H. J. (2018). *Development of the happiness scale for middle-ag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 국문: 신희진(2018). **한국 중년여성의 행복 측정 도구 개발**.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Shin, H. J., & Kim, J. I. (2019). Meaning of happiness based on ERG theory in middle-aged Korean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5(3), 315-328. <http://doi.org/10.4069/kjwhn.2019.25.3.315>. ㉮ 국문: 신희지, 김중임(2019). ERG 이론에 근거한 한국 중년여성의 행복에 관한 구성요인 도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5(3), 315-328.
- Shin, J. Y. (2007).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국문: 신지연(2007). **대학생의 행복 요인 탐색과 척도개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Shin, S. B. (2015). The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in Korea. *Journal of Social Science*, 41(2), 183-208. ㉮ 국문: 신승배(2015). 한국인의 행복감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원*, 41(2), 183-208. <http://doi.org/10.15820/khjs.2015.41.2.008>
- Shon, J. H. (2013). A study on happiness of theatre production crews. *Review of Culture and Economy*, 16(2), 3-24. ㉮ 국문: 손지현(2013). 연극 종사자의 행복 수준과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16(2), 3-24.
- Song, M. S.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uphoria and children's euphor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 국문: 송미숙(2013). **어머니 행복감과 유아 행복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Sung, M. S. (2007).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the positivity of happy person stereotype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국문: 성민선(2007). **행복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의 긍정성수준과 주관적 안녕감의 문화차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Tak, J. K. (2007).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test and understanding of evaluation methods* (2nd ed). Hakjisa. ㉮ 국문: 탁진국(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2판)**. 학지사.
- Veenhoven, R.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7-26). Ergamon Press.
- Veenhoven, R. (2008). Healthy happiness: Effects of happiness on physical consequences for preventive health ca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449-469. <https://doi.org/10.1007/s10902-006-9042-1>
- Woo, J. H. (2007). *A study on happines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 With specific focus on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국문: 우진희(2007). **초등학생과 부모의 행복에 관한 연구: 정서적 지원,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Yi, H. S. (2015).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happines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2(3), 405-424. <https://doi.org/10.24211/tjkte.2015.32.3.405> ☞ 국문: 이효숙(2015). 유아교사의 행복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교육연구**, 32(3), 405-424.
- Yoon, H. K. (2017). *A study of mother's picture book reading experience on character education with early childhoo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Eui University. ☞ 국문: 윤혜경(201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인성그림책 읽기 경험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